意思疏通國語

제 3 강의

＊친구간의　의사소통방법

＊의사소통능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의사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

－듣기　전에　어떻게　볼　것인가

＊꽃이 나를 바라봅니다.　　－정호승

꽃이　나를　바라봅니다.

나도 꽃을 바라봅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나도 꽃을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눈부십니다.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목민심서　　정약용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가기는 한 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정약용

＊아름다운 눈

비가 내리는 날은 비가 와서 좋고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이 와서 좋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은 해살이 밝아서 좋다.

삼백 예순 나날 날마다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다르고
하루 종일 날씨도 다르다.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
꽃 한 송이 모두
아름다운 삶을 위해 올곧게 살아간다.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아름다움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 중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친구
－친구란？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성공.

＊ 나를 존중하지 않는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인간관계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는 절대 내 곁에 두지 않는다.

＊친구와 의사소통

작가의 직접체험을 서술한 자서전적인 작품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데미안은 헤세의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독일 대표적인 교양소설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 **싱클레아**가 열 살이던 라틴어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생인 청년기를 맞아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성장과정이다.

인생은 하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작가이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어떤 작가로, 어떤 작품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누구나에게 사랑 받는 작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보지 않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훌륭한 작품을 쓰려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간다.
-졸업하면 뭔가 되겠지 하는 漠然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자아발견에 있다.
-인간의 삶이란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것.

-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작품의 중심 모티프이고, 내용의 줄거리이다.
이 작품은 서양보다는 동양적인 정서에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청소년층에 널리 애독된 작품이다.
비록 이 작품이 정감 있는 문체와 흥미 있는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어 지루하지는 않지만 결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다.

이 책은 고독을 사랑하고,
그 고독이 진정 자신을 완성시켜 주리라고 믿는 사람,
악을 미워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책을 칭송하는 그런 유형의 소설이다.

어린 **싱클레아**는 자기가정의 밝은 세계와 뒷골목의 어두운 곳에서 양분된 二元的인 두개의 삶을 살아간다.
그의 가정은
- 신앙심이 깊고,
- 평화로우며,
- 부모나 두 누나는 모두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싱클레아는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苦痛的인 삶을 살아간다.

이 작품은 제목이상으로 유명한 말이 있다.
"새는 알에서 깨야 나온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그 알은 새의 세계이다.
알에서 빠져 나오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의 곁으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플락사스라 한다.”

이 말은 새가 푸른 蒼空을 날아가려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껍질을 깨는 고통이 싫어 껍질 속에만 있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여러분에게 아픔은 ?

계란-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싱클레아는 항상 보호받는 가정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정의 평화로운 울타리를 배신하고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상한 인연으로 못된 **프란츠크로머**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 경험한 대로 힘이 세고, 무서운 그리고 나이도 더 든 어른스러운 못된 아이에게 시달린다.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
어느 날,
싱클레아는 크로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武勇談을 자랑한다. “果樹園에서 사과를 많이 훔쳤다고 한다”
이것을 듣고 크로머는 이것을 威脅의 도구로 삼아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누나까지 데리고 나오게 하는 못된 것을 시킨다.
어린 싱클레아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위해 고통을 받는다.

이때 상급생이고, 의젓하고 지혜가 확실한 **데미안**을 만나 그의 힘의 영향을 받아 크로머를 퇴치한다.
이때부터 싱클레아에게 데미안은 친구요, 은인이요, 스승이다.

싱클레아는 성장의 한 방법으로 부정과 비판의식을 배운다.
-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 대한 긍정,
- 예수 處刑時 悔改한 强盜에 대한 嘲笑는
싱클레아의 靈魂을 뒤흔들어 놓는다.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싱클레아는 어떤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사춘기기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外面하고 술로 나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극도의 불량학생이 되어 퇴학 조치까지 거론된 후 한 여인을 만나 頹廢的인 생활에서 벗어난다.
- 베아트리체
- 이성 친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 성공과 파멸
-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 .

그 후 그는 운명의 여인을 찾던 중, 대학에 진학하여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그녀를 만나서 자신의 운명의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부인은 잔잔한 미소와 사랑을 간직한 아름다운 부인이다.
에바부인은 싱클레아가 자기에게 사랑을 쏟는 것을 알고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로 미래를 약속한다.

에바부인은 싱클레아의 의식깊이 자리 잡은 운명의 여인이고,
아프락사스의 신이다.
작품의 종결은 1차 세계대전 중 데미안과 싱클레아는 참전하여 부상당한 후 데미안이 에바부인의 키스를 전해주면서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싱클레아는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에의 길로 들어선다. 그 引導者는 바로 데미안이다.

데미안 - 크로머

이 작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付託하고 싶은 것은
1. 데미안처럼 자신을 인정 해 주고, 올바른 인도 할 수 있는 친구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所重 것이다.

친구란 자신의 단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예).
- 돈이 없어도
- 실력이 없어도
- 못 생겨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친구가 없다면 각박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 박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 생활동안... 아름다운 사랑과 멋진 친구를 만나기 바란다.

2. 에바부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이 비록 이룰 수 없고 지금은 고통일지는 몰라도 훗날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과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사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짝사랑이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야 한다. 한 번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아름다움 감정을 받아 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놈과는 사귈 필요가 없다.

- 친구, 연인.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 영원한 인연.** - 성삼문

오늘 목마르지 않다 하여
우물에 돌을 던지지 마라
오늘 필요하지 않다 하여
친구를 팔꿈치로 떠밀지 마라

오늘 배신하면
내일은 배신당한다.

사람의 우수한 지능은
개구리 지능과
동률을 이룰 때가 많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까맣게 잊듯
사람들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 주었던 사람들을
까맣게 잊고 산다.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면
까맣게 잊고 있던 그를 찾아가

낯 뜨거운 도움을 청한다.
개구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비 올 때만 이용하는 우산처럼
사람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배신해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물물을
언제가 먹기 위해서는
먹지 않은 동안에도
깨끗이 관리해 놓아야 하듯이
필요할 때 언제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동안에도
인맥을 유지시켜 놓아야 한다.

지금 당장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배신하면
그가 진정으로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앞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

포도 알맹이 빼먹듯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고
배신해 버리면
상대방도
그와 똑같은 태도로 맞선다.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간직하여 오래도록
필요한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면
상대방은 마음을 돌려 버리고
내가 은혜를 저버리면
상대방은 관심을 져버리며
내가 배신하면
상대방은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맞서 버린다.

만남의 인연은 소중하게 해야
인연은 아름다워야 진다.

*** 인연**
－인생은 만남
－유유상종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을 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불가에서 인연은 번뇌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 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게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아무나 만나지 마라

ㅡ법정스님

* 벗

내 주변에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 한다.

허물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준비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좋은 친구란,
나를 잘 알고,
나를 받아 주고
세상에서 다 내 치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마음의 벗이다.

좋은 친구란
내 모자람을
채워 주는 존재이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부족 하다.
그것을 내 친구가 채워 준다.
좋은 친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

그 친구가 지닌
좋은 요소,
좋은 향기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재산

어떤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상호간에 보완해 주는 것이다.
－소심함,　결단력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 이다.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이다.

그런 친구를 가졌다면
인생 자체가 든든해진다.

친구란 나를 먼저 주어야 만이
다가 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친구가 내 곁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성을 떠나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진정한 친구를 가졌다는　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법정 스님

＊부족해도 벗은 벗이다

몽골의 절대자
징키스칸(1162－1227)은 매사냥을 즐겼고, 항상 자신의 어깨에 앉아 있는 매를 친구로 생각하였다.

어느 날,
바위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그릇을 엎질렀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기만 하면,
매가 계속 엎질렀다.

일국의 칸(Khan,지배자)이며,
부하들도 보고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하면 매가 계속해서 엎질러버려
매우 화가 났다.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엎지르자 결국 칼로 베어 죽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위 위로 올라가 물속을 보니 물속에 맹 독사가 내장이 터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물을 먹었더라면
즉사할 수도 있었을 건데
매는 그것을 알고 물을

엎어 버렸던 것이다.

그는 친구인 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매를 가지고 돌아와 금으로 동상을 만들고 한쪽 날개에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다른 날개에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라고 새겨 넣었다고 한다.

혹시 사소한 오해로 친구들과 불편하게 지내지는 않은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어 나중에 후회한 적 없는지?

모든 일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사랑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복자>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배운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칭기스칸-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순간 수많은 번뇌와 갈등, 우울,
두려움 등이 만들어질 때, 그 마음의 환상에 속지
말고 중심을 잡아보세요. 칭기스칸처럼 물러서지
않는 기세로, 야생마와 같은 마음을 길들여보세요.
-시크릿,woogong-

* 루소와 밀레의 友情

해질녘 농부가 수확을 마치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
바로 프랑스의 화가 **밀레의 "만종"**에 그려진 유명한 이미지이다.

밀레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가지만,
처음부터 그의 그림이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그의 그림을 눈여겨 봐왔던 것은 평론가들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사상가 이며 친구인 루소였다.**
작품이 팔리지 않아 가난에 허덕이던 밀레에게
어느 날,
루소가 찾아 왔다.

"여보게, 드디어, 자네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네."

밀레는 친구 루소의 말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밀레는 작품을 팔아본 적이 별로 없는 무명화가였기 때문이었다.

"여보게, 좋은 소식이 있네. 내가 화랑에 자네의 그림을 소개했더니 적극적으로 구입 의사를 밝히더군, 이것 봐, 나더러 그림을 골라 달라고 선금을 맡기더라니까."

루소는 이렇게 말하며 밀레에게 300프랑을 건네주었다.
입에 풀칠할 길이 없어 막막하던 밀레에게 그 돈은 생명줄이었다.
또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리하여 밀레는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었고,
보다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후,
밀레의 작품은 진짜로 화단의 호평을 받아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된 밀레는 친구 루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루소가 남의 부탁이라면서 사간 그 그림이,
그의 거실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밀레는 그제야 친구 루소의 깊은 배려의 마음을 알고
그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였다.
가난에 찌들려 있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사려 깊은 루소는,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그림을 사주었다.

*** 좋은 관계로 오래가는 방법**

"진정한 인연과 스쳐 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맺어야 한다."
- 법정

호감 가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
설문 조사 결과 유머 감각 좋고 사교적인 사람을 높은 순위로 뽑았다.
하지만 질문을 살짝 바꿔 어떤 사람이 자기 실제 친구였으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방향의 대답이 나왔다.
대부분 평생 함께하고 싶은 유형으로 '대화가 잘 통하고 편안한 사람'을 뽑았다.
그것도 거의 압도적이다.

1. 꾸준한 관심을 보여라

대화가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관심이 없으면 대화할 게 없다.
자주 만나는 사이면 대화 소재가 떨어져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가끔 만나는 사이가 훨씬 할 말이 없다.
잘 알면 잘 아는 만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이 생기는 법이다.
관심 없는 상대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건 서로 통하는 게 없어서다.

* 동행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됩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을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 할 수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허 스님

＊친구란

두 사람의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아득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와
골짜기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노라면
더 빨리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거야.”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길은 땅에 있어.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 해.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여?”

그러자 친구가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가야 방향을 알 수 있지.
나는 하늘을 보고 갈 거야.”

그러자 다른 친구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땅을 봐야 길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땅을 보면서 갈 테야.”

이렇게 두 친구는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하다
결국 각자의 길로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다름과 틀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의 생각을 인정할 줄 모르면
그 우정은 얕은 얼음과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쩍쩍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좋은 장점입니다.
두 사람이 그것을 공유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친구란 볼트와 너트 같은 관계이다.
늘 옆에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면 배려하고 아껴주라.
우정은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친구랑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가.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구걸을 하게 된다.
－유유상종

현실 속에서 당신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성장궤도가 변경되고
당신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

부지런한 사람이랑 함께하면 가난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랑 함께하면 평범하게 되지 않고
높은 사람이랑 함께하면 당신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적극적인 사람은 태양과도 같아 어디에서든 밝게 빛난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어떤 태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미래가 있게 된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그에 상응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고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며
결혼 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이다
절대로 당신을
소모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지마라.

당신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파트너와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를 만나라.
－좋은 글 중에서

＊만남의　중요성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시켜
그 종이를 주워오도록 한 다음.

"그것은 어떤 종이냐?" 고 물었습니다.
이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남아 있는 향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걸어가자 이번엔 길가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처님은 제자를 시켜 새끼줄을 주워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과 같이
"그것은 어떤 새끼줄이냐?" 고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원래는 깨끗하였지만
살면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인생은　만남.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지만,
어리석은 이를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찾아 들게 마련이다.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만나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사람도 이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물들어 가는 것이다"

*** 우정을 지키는 지혜**

"친구를 사귐에는 오로지 정신을 깊이 하는 일 말고는 다른 뜻을 두지 말라."
- 칼릴 지브란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친구가 없을 때보다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단, 만나면 기분이 좋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서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베스트프렌드라도 반감을 사거나 불쾌하게 만들어 우정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평소 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와 우정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랑 잠언』의 작가 리처드 템플러가 들려주는 **"우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신을 고양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행복이자 행운이지만, 그 우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1 원칙은 없다.
당신의 친구들은 고유한 인격체다.
따라서 당신은 친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친구들에게 바뀌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며,
친구의 결점을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

－친구에게 솔직과 정직

친구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자격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법칙 따위는 없다.

당신의 친구는 어떠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친구들이 할 일은 그저 자신으로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 상태에서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있는 그대로 존중
－친구간의 예의

2 베스트프렌드도 한 때는 낯선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미 있는 친구들만 고집하고 더 넓히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지금의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
친구가 많을수록 정말로 좋은 친구를 갖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런데도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닫은 채 소수의 친구들을 갖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낯선 사람들은 당신이 시간만 내준다면,
또 미래에 베스트프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기만 한다면 당신이 사랑해 마지않는 친구가 되어줄 존재다.

－친구를 제2의 자신이라고 한다.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눈빛만 봐도 무엇을 말하려는 지,
무엇을 원하는 지 알 정도의 친구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한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친구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친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친구 중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친구가 있고, 반드시 멀리할 친구가 있다.

益者三友라는 말이 있다.
－사귀면 이로운 세 친구

정직한 친구,
신의가 있는 친구,
학식이 있는 친구

이와 반대로
損者三友는
－멀리해야할 친구
성실하지 못한 친구,
착하기만하고 줏대가 없는 친구,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친구.

＊伯牙絶絃
－백아는 거문고를 잘 연주했고, 종자기(鍾子期)는 (백아의 연주를) 잘 감상했다.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그 뜻이 높은 산에 있으면 종자기는
“훌륭하다. 우뚝 솟은 그 느낌이 태산 같구나.”라고 했고,
그 뜻이 흐르는 물에 있으면 종자기는
“멋있다. 넘칠 듯이 흘러가는 그 느낌은 마치 강과 같군.”이라고 했다.
백아가 뜻하는 바를 종자기는 다 알아맞혔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더 이상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知音**)이 없다고 말하고 거문고를 부수고 줄을 끊고 죽을 때까지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
연주하지 않았다.(伯牙善鼓琴, 鍾子期善聽. 伯牙鼓琴, 志在高山, 鍾子期曰, 善哉. 峨峨兮若泰山. 志在流水. 鍾子期曰, 善哉. 洋洋兮若江河.
伯牙所念, 鍾子期必得之. 子期死, 伯牙謂世再無知音, 乃破琴絶絃, 終身不復鼓.)」
『列子』 湯問, 『呂氏春秋』本味

3 절대로 충고하지 마라.
질문하라
이 원칙은 아주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친구에게 충고를 하지 마라.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친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설사 친구가 충고를 구하더라도 충고를 하고 싶다는 유혹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하물며 **충고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건 아주 쉽다.
질문을 하면 된다.
친구가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질문을 유도하지도 않도록 조심하면서 질문을 하면 된다.

4 우정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하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친구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가깝게 지냈지만 지금은 거의 연락을 안 하거나 아예 관계가 끊어진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한 때 공감대를 가졌던 사람들 모두와 꾸준히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죄책감이나 유감을 품을 필요는 없다.
우정이란 이렇게 빛깔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5 놓아줄 때를 알아야 한다.
각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친구관계는 자연히 소원해진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정을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다.
당신이 변했을 수도, 친구가 변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우정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는 태도다.

아무리 친구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면
굳이 조류를 거스르려고 애쓰지 마라.
그 우정을 놓아주고 당신은 당신이 갈 길을 가는 게 현명하다.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한다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다.

*** 우정을 지키는 법**

1. 존중하라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어야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다. 하물며 성인은 어떻겠는가?

2. 입장을 바꿔라

무엇이든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다.

- 다름과 틀림

3. 꾸준한 관심을 가져라

일회성 관심은 무관심보다 서글프다.

잠깐 신경쓰다가 이내 무심한 것은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다.

4. '그 사람' 자체에 감사하라

- 그 사람이 무엇을 주었거나,
- 무엇이 되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존재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그러므로 '그 사람' 자체에 감사하라

5. 관찰하라

- 보는 만큼 알게 되고
- 아는 만큼 좋아할 수 있고
- 좋아하는 만큼 배려할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6. 나 자신부터 치유하라

자기가 상처받아 아프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겠는가?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다

7. 격려하라

좋은 일에 칭찬을 그치지 말라.
- 힘들고 지쳤을 때,
-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
격려가 난관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에게 친한 친구 분이 계셨다.
늘 형제처럼 살았던 친구였다.
그런데 그 친구 분이 8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한 시간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친구야! 나 먼저 간다."하고. . .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셨다. 나 먼저 간다는 말 속에는, 그 동안 고마웠다는 말도 들어 있었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도 들어 있다. .

그 전화를 받은 아버님은 일어날 수 없으니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시간 후에 친구분의 자제로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내가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나 먼저 간다고 작별인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친구.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한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 삶은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할까?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야, 먼저 간다'고
-'내가 먼저 자리 잡아 놓을테니 너는 천천히 오라'고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후배도 좋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삶의 마지막작별인사를 하시겠습니까?

-꽃 한 송이,
-사람 하나가,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잠시 삶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가까운 곳에 아름답고, 소중한 벗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못보고 끝없이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
-앞으로도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줄 사람,
-그 사람이 직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우정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효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시아스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형수들도
부모님과 작별인사를 하겠다고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가 멀리 도망간다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고심하고 있을 때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 보증을 서겠다면서 나섰습니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다몬아,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피시아스를 믿느냐?"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피시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만약 돌아오려 해도 그의 부모가 보내주지 않겠지.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다."

"저는 피시아스의 친구가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허락해주십시오 폐하"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다몬은 기쁜 마음으로 피시아스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이 죽게 됐다며 비웃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다몬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습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다몬이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집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때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재촉하여 달려오며 고함을 쳤습니다.
피시아스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피시아스가 말했습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피시아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몬과 피시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뒤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곁에 서있던 시종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 친구 없는 사람의 특징**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길 원치 않을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벌이 안 오는 꽃에는 이유가 있다.
향기가 없다든지
꽃가루 맛이 별로라든지.
사람도 사람이 안 꼬일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면 기본부터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뭔가가 잘 안 되는 건 뻔한 걸 제대로 안 해서지 특별한 걸 못 해서가 아니다.

1. 먼저 연락 안 한다
연락은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안부는 매일 물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 떠나 아예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건 어느 정도 바꿀 필요가 있는 성향이다.
친구 목록 옆에 날짜를 적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연락하자.
-다음에 보자고 미루다가 몇 십 년 만에 만났다는 어르신들 얘기가 농담이 아니다.

2. 뭐 하자고 하면 핑계 댄다.
귀찮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좋을 수 없다.
작은 거 하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그러므로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걸 하자고 하거나 멀리 가자고 하면 짜증 날 수밖에.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지 않으면 추억이 쌓이지 않는다.
관계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추억이 쌓이며 발전하는 건데 만나서 게임이나 몇 판 하는 사이가 뭐 그리 깊어질 게 있겠는가.

친구가 뭐 하자고 하면 빼지 마라.
먼저 제안은 못 해도 시키는 거 있으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 주기만 해도 기본은 한다.

3. 자기 콘텐츠가 없다
만나면 재미없는 사람이 있다.
단순히 성격이 심심하다거나 말을 못 해서가 아니다.
자신만의 콘텐츠가 빈약한 사람들이 그렇다.
듣고 싶은 얘기가 없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사람은 자기만의 역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너무 빈약하면 할 얘기가 없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배우고 말고를 떠나 그냥 인간 자체가 흥미로운 게 없는데 어떻게 친해지겠나?
성공한 사람이 돼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열심히 살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충실히 쌓고,
친구들에게 정기적으로 먼저 연락 잘하고
뭐 하자고 하면 뒤로 잘 안 빼기만 해도 인간관계는 충분히 좋아진다.

이런 기본적인 걸 못하니 마음 터놓고 놀 만한 친구 하나 없고,
휴대전화를 게임기로 쓰는 거다.
나만의 스타일로 홀로 살겠다는 생각은 일찍 접는 게 좋다.
어릴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나이 들면 반드시 비참해진다.

*** 친구를 설득하는 방법**

1.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The only way to get the best of an argument is to avoid it.

2. 친구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너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Show respect for the other person's opinions. Never say. "you're wrong".

-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친다.

-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의 말이 틀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나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 결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또한 이런 일은 모든 논쟁을 중단시키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하고 솔직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 것이다.

어쩌면 자기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지도 모른다.

3.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If you are wrong, admit it quickly and emphatically.

-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잘못과 방어적인 마음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실수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Begin in a friendly way

6.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Let the other person do a great deal of the talking

－나보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될수록 말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태도,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7.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Let the other person feel that the idea is his or hers.

－어떤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라.

그러면 그의 행동, 아니 어쩌면 그의 인간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것인 양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따뜻한 태도로 먼저 목적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그가 듣고 싶어 할 말을 바탕으로 말을 조절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너그러이 수용한다면, 그도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8.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Try honestly to see things from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9.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Be sympathetic with the other person's ideas and desires.

11.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Dramatize your ideas.

12. 도전의욕을 불러일으켜라.

Throw down a challenge

- "카네기 인간관계론"중에서

* 친구를 사귀는 중요한 원칙

가치관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의 다른 가치관을 존중할 줄 모르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

* 좋은 친구관계를 만드는 기술

카네기공과대학에서 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15퍼센트는 전문적 기술이나 뛰어난 두뇌 덕분에 성공했고

나머지 85퍼센트는 성격 때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성격이란 다름 아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

즉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지만, 보통은 노력하는 것만큼 원만하게 잘 풀려나가지 않아서 늘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또한 인간관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간바 와타루가 들려주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7가지 노하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든,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직원이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돕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동도 삼가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도 친한 상대에게는 소홀히 대하거나,

상대의 결점을 함부로 지적하고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대가 바쁜데도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부담을 주기도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나가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친한 사이일수록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와의 관계를 소중히 가꿔나가야 한다.
- 예의
- 식사예절

2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인간관계를 생각하라.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이다.
물로 늘 손해득실만 따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원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어서 자신에게 아무 이득 될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주기만 하다 보면 자기만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목표가 일치하고,
서로가 비슷하게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
서로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다고 느끼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와의 관계가 왠지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과연 이 사람이 내게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매 주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교제방식도 관계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라.
처세술이 좋은 사람은 남을 잘 움직일 줄 안다.
왜.
그들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즉 상호간에 이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사이고 부하직원을 움직이고 싶다면,
단순히 지시만 하지 말고 부하직원의 의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업무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달성하면 칭찬을 하라.
능력 있는 상사는 부하직원의 의욕을 북돋울 줄 안다.
상대의 의욕을 높이는 일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큰 능력이기도 하다.

4 어떤 일을 하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평소 불만불평이 많은 사람은 현재의 자신에 대한 분노나 공격 혹은 곡해와 같은 형태로 쏘아 붙이고 있을 뿐 그 고민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다.
주위에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내 뜻대로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표현은 자율신경을 통해 신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만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잘 될 거야.",
"다시 열심히 하면 돼."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려면 부정적, 비관적 말투를 버리고 긍정적인 표현을 익히자.
부정적인 표현은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왠지 불쾌한 기분이 되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표현은 자신은 물론 듣는 사람마저도 기분 좋게 만든다.

5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나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시키다 보면 소극적인 태도가 되어 인간관계까지 잘 풀리지 않는다. 또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무시하는 건 아닐까?"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

이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비굴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 약점을 모두 포함하여
“이것이 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자신감은 과거에 실패했던 자신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안심시키는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일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한다.

6 혼자서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되는 사람은 남들이 신경을 쓰게 만든다.
주위에 누군가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도 없이 남의 집을 방문하기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위니코트에 따르면, 혼자서도 뭔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유아기 초기에 이미 형성된다고 한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이 있을 때는 둘이서 즐기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시간을 즐겨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법이다.

7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려면 타인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켜야 한다.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자신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또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매우 안정되고 편안해 진다.

이렇게 인간관계는 인격형성이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넓힌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타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타인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나가자.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누군가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릴 때

난 따뜻한 햇볕 아래 있는
당신께 내 아픔 내보이며
보다듬어 달라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선 따스한 손길로
따스한 웃음으로
나의 아픔을 녹여 주십니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있단 것이

누군가 세상의 힘겨움에 떠밀려
고통스럽게 허우적대는 동안

난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당신께 날 잡아 달라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여나 놓칠세라
내 두 손 꼭 붙잡으시고 천천히
당신 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난 이렇게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므로…
- 이해인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 蓬生麻中 不扶直 (봉생마중 불부직)

굽어지기 쉬운 쑥대도 삼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진다는 뜻 이다.
좋은 벗들과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친구들과 교분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동화 되어서 올 곧게 자라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좋은 만남이 좋은 인연을 낳고, 좋은 인연이 좋은 인생을 낳는다.

＊좋은 친구 만들기

1.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신을 믿는 것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자신을 최선의 상품
－내가 제대로 된 사람.
－술－개

2.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라.

3.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어라.

4.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5.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6. 겸손하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라.

7.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되어라.

8. 상대의 장점을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 단점을 지적하라.

9.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마라.
－생각의 나무 중에서

* 인생에서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것.

1. 꿈
2. 친구

*오늘의 명언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처칠

과제 : 소중한 친구를 위하여
분량 : A4용지 한 장
과제제출 ID : beach1014@hanmail.net

PS. 과제는 강의자료를 읽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야 합니다.